“광주·전남 원팀 돼야 2차 공공기관 이전 상생발전 이끌어내”

민주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1〉 이낙연 후보

개혁·진보적 의제 실현이 호남 정치력 복원 첩경

5·18, 여순사건 특별법 당론 법안 추진 조속 통과

민주당 정기국회 성과 내년 보궐선거 성패 열쇠

비수도권 이전·유턴 기업 세금 감면 등 지원책 필요

오는 29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 ‘상생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빛가람 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광주와 전남이 공동혁신도시로 유치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16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해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한전공대 설립 부지로 선정되면서 미래 에너지산업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는 광주와 전남이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또한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원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복경쟁이 되지 않도록 기관간 성격, 지역산업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고려하며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유치 노력을 전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광주·전남 국회의원 대부분이 초선이라 호남 정치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도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장관을 역임한 3선 중진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지도부인 전현직 최고위원과 대변인까지 광주·전남의 현안과 시·도민들의 목소리를 굴절없이 전달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과 경륜을 가진 분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광주·전남 국회의원 역대 최고의 진용이 짜여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호남 정치의 정체성은 지역성을 넘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에 있다. 큰 틀 안에서 개혁적·진보적 의제를 던지고 이를 실현시키는 것”이라면서 “호남 출신 전현직 총리와 여당 원내대표, 호남에 연고를 둔 여러 중진 의원들, 그리고 완벽한 세대교체를 이루며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까지 이들 모두가 호남 정치 복원의 주역들”이라고 평가했다.

5·18진상규명특별법과 여순사건특별법의 처리도 자신했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까지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또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비방하고 폄훼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5·18역사왜곡을 처벌하고 진상조사 활동의 권한을 강화하는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당론법안으로 추진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몸집이 커진 내년 재보궐 선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승리가 선거 이전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탕이 되었듯이 내년 보궐선거 또한 8·29 전당대회 직후 시작돼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성패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또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해법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했다. 그는 균형발전 뉴딜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을 만들어 나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권역별 산업발전 전략을 접목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에 정착하는 국내유턴 기업이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과 연구개발투자비 지원 확대 등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전국이 고속철도 덕분에 2시간 생활권에 접어들었지만 철도가 생긴 지 100년이 넘는 서울~여수 전라선은 아직 3시간이 걸린다. 무늬만 KTX 고속철인 셈이다”면서 “전라선 직선 고속화 조기 착공은 시기상의 문제일뿐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전남도에서 추진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노력을 계속 전개해 나가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한국형 뉴딜을 포함한 고속철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섬세 vs 호소 vs 젊음…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 스타일

이, 안정적이지만 신중함 지나쳐

김, 강하지만 거친 한방은 없어

박, 격정적이만 너무 점잖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기호순). /연합뉴스

8·29 전당대회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에서 당 대표 후보 3인의 ‘각양각색’ 스타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섬세하지만 엄중한 이낙연=역대 최장수 국무총리인 이낙연 후보는 ‘디테일 메시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른 두 후보보다 각 지역 현안을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다. 이 전략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총리 재직시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현안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소개했다. 중후한 음성과 안정적인 어투도 이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다. 그의 화법은 총리 시절 야당 의원들의 예봉을 꺾고 역공을 펴면서 정평이 났다. 다만 ‘엄중낙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중함이 지나쳐 호소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하지만 거칠지 않은 김부겸=김부겸 후보의 강점이라면 청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짙은 호소력을 빼놓을 수 없다. 풍부한 대중연설 경험을 바탕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중요한 대목에서는 사자후 같은 격정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유독 ‘변주’가 많은 편이다. 미리 작성한 연설문을 읽는 대신, 즉석 발언으로 청중과 호흡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박수를 보내달라”는 식의 애드리브도 매력 포인트다. 그러나 보통 야당 투사나 후위주자에게 요구되는 ‘거친 한 방’이 여전히 부족하는 지적을 받는다. 이 후보와 겹치는 중후한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가끔 돌직구를 날리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절박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밋밋하다는 것이다.

◇젊지만 점잖은 박주민=40대인 박주민 후보는 젊음에서 비롯되는 격정적 스타일을 앞세운다. 다른 후보들이 단상 앞에서만 연설한 반면, 박 후보는 마이크를 손에 쥔 채 단상을 벗어나 한 발자국 더 다가가면서 청중에 호소했다. 주요 대목에서 격정적 손짓과 ‘스타카토’ 식으로 목청을 높여 열광적 분위기를 끌어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후보와 김 후보가 ‘대선후보 당 대표’를 두고 상대를 향해 선명성을 드러낸 와중에 박 후보는 시대 전환을 향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 집중했다.

다만 세월호 변호사라는 강한 이미지를 지녔는데도 삼촌뻘인 두 경쟁자와 각을 세우지 않는 점잖은 태도로 일관해 “최고위원스럽다”는 시선도 따른다. /연합뉴스

이낙연 39.9%·김부겸 21.8%·박주민 15.7%

윈지코리아 당대표 지지도 조사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를 뽑는 8·29 전당대회 초반 판세에서 이낙연 후보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달 31일 나왔다. 초반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의원의 대세론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이 이번 전대에서 과반 이상의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150명을 대상으로 당 대표 후보 지지도를 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39.9%가 이 후보를 꼽았다. 이어 김부겸 후보 21.8%, 박주민 후보 15.7% 순이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는 22.6%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도는 이 후보 57.4%, 박 후보 18.0%, 김 후보 17.1% 순으로 나타났다. 권리당원에서도 이 후보 51.5%, 박 후보 22.7%, 김 후보 19.9% 순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윈지코리아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낙연 쏠림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지고 오차범위 이내에서 박 후보와 김 후보의 순위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이 의원의 대세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커다란 악재만 없다면 이 의원이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내는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전체 투표의 45%를 차지하는 대의원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대세론에 민감한 대의원들의 정치적 성향을 감안하면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 의원의 대세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이번 전대의 관전 포인트는 당권주자이자 대선 주자인 이 의원이 과연 폭발적인 지지를 견인하면서 당을 확실히 장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1인 2표를 행사하는 최고위원의 경우 전체 응답자들의 1·2순위 후보 지지도를 합산한 결과 김종민 후보가 26.7%로 가장 높고, 노웅래 후보 18.9%, 양향자 후보 13.8%, 염태영 후보 8.5%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35.6%, 노 후보 21.0%, 양 후보 17.4%, 그 외 후보는 10% 이하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